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는 남 유다의 13번째 왕으로 25세에 왕이 되어 29년간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지 4년째에는 북 이스라엘이 앗수르에 의해 멸망하였습니다. 히스기야와 유다는 북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며 간접적으로나마 앗수르의 위협을 경험하였다면 이번에는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그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지 14년이 되었을 때에 앗수르의 왕 산헤립이 유다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근방의 여러 성읍들을 점령하며 히스기야와 유다에 크게 위협이 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러한 위협 앞에 놓인 히스기야 왕이 그 옷을 찢고 굵은 베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신복들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냈습니다. 바로 위기 앞에 히스기야가 택한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앗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왕하 19:6-7)."

히스기야는 앗수르 왕 산헤립에게 성전과 왕국의 금과 은을 빼앗겼습니다. 또한 앗수르 왕이 보낸 랍사게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북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과정을 지켜본 히스기야로서는 매우 위급한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앗수르 왕은 예루살렘에 이르지 못할 것이며 결국에는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 앗수르 왕이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은 19장3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앗수르가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사실을 생각해 보면 이와 같은 일은 매우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먼저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앗수르의 군사 십팔만 오천 명을 죽였습니다(19:35). 히스기야는 자신의 군대를 동원할 필요도 없었고 앗수르와 싸움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고 일어나보니 앗수르의 강력한 군사들이 모두 송장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앗수르 왕 산헤립이 니느웨로 돌아갔는데, 그곳에서 앗수르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자신의 신하인 아드함멜렉과 사레셀에 의해 살해 당하였습니다. 현재 유다와 히스기야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앗수르의 군사들은 모두 죽었고 그 군대를 지휘하던 앗수르의 왕 산헤립은 자신의 나라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앗수르의 군대가 모두 죽임을 당하고 산헤립도 자신의 나라에서 죽임을 당함으로 이스라엘의 대적이 모두 제거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장에서 보면 자신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 간구하여 그 생명을 15년 연장 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늘의 해 그림자가 십도 뒤로 물러가는 기적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다른 사람들이 일생에 한번 경험하기도 힘든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연이어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와 같은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과 유다에는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히스기야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순종하고 준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눈 앞에서 강력한 애굽의 군대를 죽이시고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건널 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고 옷이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으며 구름과 불로 그들을 40년 동안이나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단 강을 갈라지게 하셔서 다시 한 번 마른 땅을 건너듯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단단한 여리고 성이 무너졌으며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셔서 이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간단하고 당연한 것을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질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대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그 믿음을 실행한 것일까요? 먼저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18:3).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가식이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 우리 내면의 마음과

외면의 행동이 일치하는 즉 가식이나 위선이 없는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매우 강력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외형적인 것 이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충실 한다면 그 신앙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 있어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는 것일 뿐이고 단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는 여러 가지 잘못된 신앙의 개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9장에는 히스기야가 그의 아버지인 아하스가 닫았던 여호와의 성전의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대하29:3).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성결할 것을 명한 후에 여호와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였습니다. 성전에 있던 더러운 것들을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동안 중단 되었던 유월절을 다시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여러 곳에 있던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들을 깨뜨렸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하다못해 모세가 만들었던 놋 뱀도 부서 버리고 '느후스단' 즉 놋 조각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모세의 놋 뱀을 이때까지 분향하고 우상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놋 뱀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세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 뱀에 물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놋 뱀을 만들어 높이 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놋 뱀을 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분명히 그 놋 뱀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무리 그 놋 뱀을 본 사람들이 살아났다고 해도 그것은 그 순간에만 허용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도 금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세의 놋 뱀과 같이 우리 인생들은 어떤 형상을 만들게 되면 그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것을 우상처럼 변질시키고 잘못 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때에 있던 이 놋 뱀을 무려 700년 가량이 지난 히스기야의 때에까지 분향하고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바른 믿음은 버리고 마치 가나안 땅의 이방 신들을 섬기듯이 미신적인 것으로 변질시켜 놓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러한 모세의 놋 뱀일지라도 단지 놋 조각에 불과하다는 의미로 느후스단이라고 부르며 부숴버린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지의 여부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있지는 않습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고난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라도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벧전2:9),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벧전2:21).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지의 여부는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고난을 당할 때 그 진가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안팎으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위태할 때 하나님께 나아갔고 자신이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반면 히스기야와는 달리 그의 아버지인 아하스는 고난을 당하여도 오히려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더욱 범죄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8장22절의 말씀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아하스 왕은 바알을 섬기며 이방 신들을 섬겼을 뿐 아니라 어린 아이들을 불살라 제물로 드리는 죄를 범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아람 왕과 이스라엘 군대를 사용하셔서 아하스와 유다를 치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선지자 오뎃의 도움으로 그 포로들이 다시 유다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하스는 위기를 직감하고 앗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였지만 유다를 돕기 위해 온 앗수르 왕은 도리어 아하스에게서 많은 재물을 빼앗아 갔습니다. 아하스의 시도는 아무 소용이 없었고 오히려 더욱 큰 곤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곤경과 위험 속에서도 아하스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도리어 더욱 여호와께 범죄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람 왕을 돕는 다메섹의 신을 자신도 의지해야겠다고 생각하여 그들을 섬기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대하28:23)."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아하스인 것입니다.

아하스와 대비되는 또 하나의 사람이 있는데 그는 아하스의 손자이자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또한 유다의 악한 왕들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왕 중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한 왕 중의 악한 왕인 므낫세는 자신의 할아버지인 아하스와 다른 선택을 하였습니다.

역대하 33장12-13절 말씀에 보면 므낫세는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환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분의 도우심에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므낫세와 같이 악한 왕에게도 우리가 깨닫고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무리 악한 죄악이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진심으로 겸손히 나아가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분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겸손하게 나아오는 사람은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들의 믿음이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믿음인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분의 보호하심을 구하며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동시에 만일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회개하며 나아오는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